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호산나 /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 나를 위하여 / 내가 예수를 못박았습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전춘우
*성경봉독	요12:12-19	박성호
말씀	예수의 시각으로 본 종려주일	김상범 목사
성찬	다같이(집례:김상범 목사)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수의 시각으로 본 종려주일 (요12:12-19)

12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14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16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18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려주일을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중들의 바람 대로 예수께서 이 사건 후에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머지않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종려주일의 의미를 군중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은 같은 사건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한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크게, 군중들, 유대 종교지도자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각각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각지에서 모인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그 수가 수 십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전 베다니 라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 내신 이 사건은 가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조차 이 사건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심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에게 온통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매불망 예수만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에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에 온 예루살렘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 군중들이 하나 둘 씩 손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 그것을 흔들며 예수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땅에 깔고는 힘차게 소리치며 예수를 영접합니다. 종려나무는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망도 함께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대단히 불편해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타고난 정략가요, 노련한 정치가들입니다. 이들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좋던 싫던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그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위협과 협박으로 막아 왔는데 얼마전 나사로 사건 이후로는 이들도 민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대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이미 예수에게로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를 소망대로 예수가 왕이 되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은 끝장 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도, 군중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반응하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 으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소 냉담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5일 후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심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무리의 영적 필요를 보시고, 그것에 집중하신 분이십니다.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나귀를 타신 것에 담겨 있습니다. 군중들의 종려나무와 호산나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은 순종과 회생, 겸손과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 뒤에 있는 타락한 성 예루살렘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외치는 소리 뒷편에 있는 군중들의 구원의 대한 필요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왕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요 12:23-24)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행동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시각,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성전 체제'와 '종교 체제'는 완전히 끝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이외의 중재자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더 이상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산책

마지막,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가 영광 받을 때 오히려 자기들이 우쭐해하였습니다. (눅 19:37) 이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한 마디로 평가합니다. (요 12:16a)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스가랴 9: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군중들이 환호했던 속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흔든 종려나무는 '사랑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 예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군중들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만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의미에 맞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 후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므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나눔을 위한 질문

1. 종려주일 사건 속에 보이는 갈등구조를 발견하는 만큼 서로 나눠주세요.
2. 군중들의 행동의 본 의도와 예언적 의미의 차이를 발견해 보시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나눠주세요.
3. 군중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

찬송가144: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 구절: 고전 11:23~26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 (장년 2부 예배 시간 중)

세례: 강민석, 노지윤, 조인래
입교: 이보배

종려주일

다음 주일(4월 2일)은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3일(월) ~ 7일(금) 오전 6:30
ZOOM으로 진행

성금요일 Arise 찬양 기도회

7일(금) 오후 8시, 본당
이번주 토요일기도회는 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적 리더십 세미나

4월 22일(토) 오후 2시, 본당
강사: 이은상 목사 (세미한 교회 담임목사), 이정찬 목사 (세미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
대상: 전교인(다음세대 학부모, 청년 포함),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목녀, 교사), 교역자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기간: 7월 10~28일 (3주간)
문의: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귀납적 (Inductive) 성경공부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6-8시
첫 모임: 3/30/2023 목요일 6시
장소: 교회 혹은 외부 장소
본문: 룻기 (한국어로만 진행)
신청방법: QR CODE



팀원 모집

미디어팀 - 청년부 예배 전 주보를 프린트 해주실 분 (문의: 안혜성)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청년부 신청 QR

지체동정

졸업연주회
장소: Jessen Auditorium, Homer Rainey Hall
200 W 21st St, Austin, TX 78712
일시: 4월 5일, 6pm (김현정 - 바이올린)
8pm (이보배 - 첼로)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